

2008학년도 논·구술 대비

수능으로 논·구술 파헤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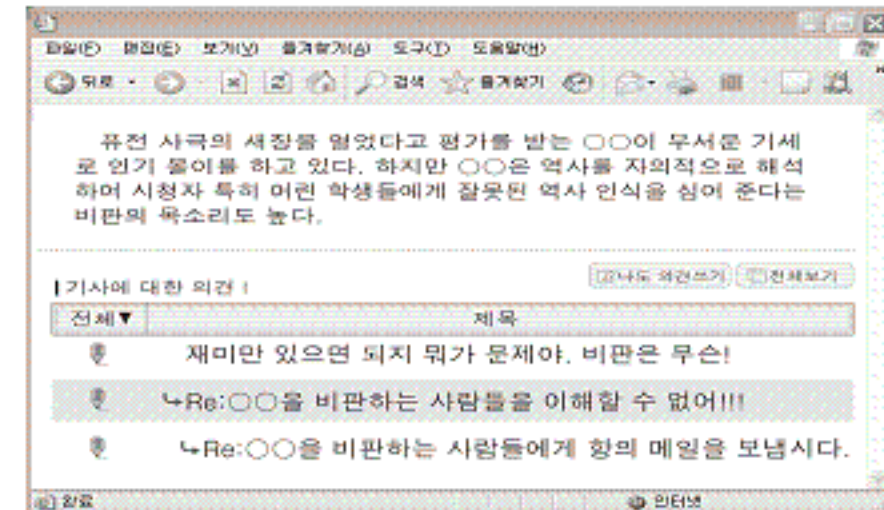


Lecture by

Zola Cool Guy

수능

15. 다음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회 현상의 인식 태도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 ㉠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태도
- ㉡ 사실의 진위(眞僞)를 파악하는 태도
- ㉢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 ㉣ 부분과 전체와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 ㉤ 확고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

문제 의식

문제 의식은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 의도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제 의식을 파악하면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는 다양한 문항을 이해할 수 있다.

논 · 구술

위에서 파악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는 논·구술 문항을 살펴 보자. 결국 수능과 논술은 동일한 문제 의식을 표현하는 다른 형식의 시험일 뿐이다. 따라서 수능과 논·구술은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다만, 수능이 사실 판단에 초점을 둔다면, 논·구술은 사실을 근거로 가치 판단까지 요한다는 점에서 수업생의 준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부산대 거울

최근 역사적 사실을 다룬 TV 드라마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TV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소재일 뿐이며, TV 사극이 역사 다큐멘터리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TV의 역사극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역사관에 대해 말해 보라.

[요약 및 해설]

<담기 자료> 사극 `역사왜곡`은 피할 수 없는 숙명?

최근 KBS 1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역사왜곡 논란을 겪었다. 왜군의 조공을 맞아 정사한 것으로 기록된 녹도만호 정문(안승훈)이 독탄을 겪었고 국은 것으로 묘사된 것이다. `왜국`이란 비관과 `드라마원문`이란 한문이 정정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극 중에서 왜국 논란을 빚어간 드라마는 거의 전무하다. 인물에 대한 재평가만 정에서 정사에 쓰인 기록과 작가의 상상력은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드라마의 인기와 논란 정도는 비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태조왕건`이다. 궁궐을 재평가한 그 작품에서 궁궐의 마지막 자결로 처리됐다. 기록엔 보리를 훔치며다 농민들에게 맞아죽는 것으로 나온다. 왕건에 비공을 두면서 전원이 학적으로 그려지고, 왕건이 지나치게 성민처럼 그려진 것도 비판을 받았다.

전원희 아버지인 아자개와 딸 대주도공과 박살의장군과의 러브스토리는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허구. 전원 휘하의 주허조 장군이 대야열을 공격하다 죽은 것으로 그려진 것도 대표적인 허구 사례다. 그는 백제가 망할 때까지 살아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동생인 윤원형을 문정왕후의 모자로 묘사한 `여인천하`도 문정왕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기록엔 표독스럽고 학정을 행한 인물로 그려진 왕후가 드라마에선 순기롭고 현명한 인물로 그려졌다.

`허균`과 `대장금`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료에도 허균의 시신 해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극중 허균은 스승을 해부했다. 침과 뜸, 약의 한계를 넘어선 인물로 그려진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은 과선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대장금`에서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궁중이 `내 병에 대해선 광풍만큼 아는 이가 없다`고 말한 짧은 대목이 전부였다.

드라마 `야인시대`와 `명문시대`는 권력연륜과 권력기열이 미화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과의 진명이나 한민족위가 부정적으로 그려졌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최근 종영된 `해신`은 고구려 유민인 이도형과 명문을 학당으로 묘사해 `고구려 역사 왜곡`이란 비판을 받았다.

모든 재평가가 비난을 받은 것은 아니다. 정도전을 재평가한 `용의 눈물`이나 허균을 다룬 `권등소리` 등은 후한 평가를 얻었다. 허균은 조선왕조실록에 `괴물, 금수` 등으로 표현돼 있고, 정도전은 태조실록에 옛날에 품었던 감정은 기어코 보복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사극이 논란을 빚는 경우는 대부분 주인공을 명문화하는데 따른 결과물들이다. 주인공의 여타 부분이 미화되고 그에 따라 주변 인물들이 평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현존하는 인물을 다룬 경우 드라마의 인기는 곧바로 인물에 대한 인기로 이어진다. `모래시계`에 주인공으로 등장해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은 홍준표 국회의원이거나 `야망의 세짱`에서 주인공으로 다뤄진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표적이다.

`권력 문제` `고구려 역사 왜곡`처럼 당시 시대 문제와 맞물리면 사극은 더욱 뜨거운 논쟁거리 된다. TV가 수백권의 책이나 논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TV리포트 김대홍 기자] paraethink@yahoo.co.kr

- 출처 : <http://cafe.naver.com/comeiahistory/876>

수능

16. 다음은 어느 학생이 학과 지원 동기를 밝힌 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점]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은 ㉠교내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여 주말마다 ○○의 집이라는 ㉡장이인 자원봉사를 방문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찾아갔지만,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다른 없는 인간임을 새삼스러 느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도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도덕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 ㉠ ㉠은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은 비공식적 조직에 해당된다.
 ㉢ ㉢은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 ㉣은 내집단에 해당한다.
 ㉤ ㉤은 부정적, ㉤은 긍정적 준거집단이다.

문제

의식

논·구술

고려대학교 경시 거술(일부 변형)

【논제】

다음 두 제시문은 집단(혹은 조직)에 대한 글이다. 두 제시문의 관계를 밝히시오(140~200자).

【1】우리가 가진 근본 욕구를 중에는 도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큰 조직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불가피하게 억압받고,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규칙은 인간에 의해 고안되었지만 인간 자체는 아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만들어졌어도 거기에는 '사람의 손길(human touch)'과 같은 유연성이 없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의 구성원은 도덕적 존치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된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제가 할은 지시 사항입니다." 이처럼 큰 조직들은 아주 불량하고 부도덕하게, 또는 아주 어리석고 비인간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는 그 구성원들이 본래 그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조직의 크기에서 오는 하중을 받기 때문이다.

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지만 이런 비판은 마치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서 운전자를 나무라는 것과 같다. 천사라도 공기를 더럽히지 않고 차를 운전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결국 잘못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있다가 보다는 조직의 크기에 있는 것이다. 개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는 부도덕하다.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거대주의에 의한 합리화'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너무 커진 규모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2】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본 때, 국가나 민족은 물론 지역과 도시까지도 지나치게 크고 추상적인 조직체로 보인다. ...[중략]...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제한하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현대사회의 기괴한 조직은 도시에서 잘 나타난다. 문화의 참 생명력이 우리의 구체적

인 삶의 향상과 희망과 중요화에서 온다면, ... (중략) ... 핵심적인 문화공간은 민족이나 도시보다도 더 작은 집단이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집단, 사회학자들이 '대면집단'이라고 부르는 사회공간이 우리의 문화적 생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공간은 하나의 확정된 물리적 구체으로보다는 여러 집단의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에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대면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개인적 자아의 내면공간에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또는 도시로 번져나가고 국가나 민족 그리고 세계의 지평으로 둘러싸인다.

소집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체적 삶의 공간으로서 구체적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이나 도시는 이 소집단에 다양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필수적 요인이 된다. 도시든, 지역이든, 국가든, 이러한 것들은 소집단의 구체성의 원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요약 및 개념]

[원거 자료] 공로제의 문제점

·경찰서 앞에서 112신고부터 하라니·

연 합 뉴 스 2007-02-24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을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서 앞까지 데려왔으나 '112신고부터 하라'며 경찰이 녹장부리는 사이 난동 취객이 도망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정관과 승객들에 따르면 이날 0시경 송파구 모금동 방면으로 가던 862번 시내버스가 정기고교 앞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순환할 무렵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뒤늦게 버스를 향해 달려왔으나 문경기사 박모(57)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순환하려 했다.

뒤늦게 온 손님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박씨는 정류장을 조금 지나쳐 다시 버스를 세웠고 술에 취한 이 남성은 버스에 타자마자 '꽤 늦게 태워줬나. 난 두고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박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박씨가 탄 문경사의 의자를 계속 함부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승객들은 전했다.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10여명 중 8명은 취객의 행패를 제지하며 박씨에게 '근처에 경찰서가 있으니 일단 거기서 가자'며 버스를 강남정관서 방향으로 돌렸다.

①버스는 강남정관서 정문 앞에 있고 승객들은 취객을 데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정문 철벽문 닫고 있던 경정들은 '사건을 접수하려면 지구대를 거쳐서 가야 한다. 112에 먼저 신고를 하라'며 여들을 제지했다.

이들은 '여기가 경찰서 아니냐'며 다소 황당해하면서도 일단 휴대전화로 신고했고 그 사이 붙잡혀 있던 취객은 제란도 경찰서 안에 들어가 정사 안내데스크에서 담뱃지갑을 서면 A순경에게 '나를 감옥에 넣어라'며 술에 취한 목소리로 항의수설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면 A순경이 '그럼 나가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함께 현관을 나서는 순간 취객은 감자기 뛰쳐 달아났고 정문 밖에 있던 승객 2명이 뒤를 쫓았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

승객들은 '경찰서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믿고 왔는데 눈앞에서 놓쳐버렸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버스 문경기사 박씨도 '명색이 경찰서라면 **②담뱃지가 나와서 사건 개보든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경찰서에 담뱃지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며 불만을 얻어 놓았다.

[문제 1] 경찰 조직을 공로제 조직이라 했을 때,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공로제의 문제점은?

[문제 2(논구술로 연결하기)] [문제 1]에서 지적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로제가 가지는 장점을 무엇인가? 단, [문제 1]의 답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모의야기]

정은 접미 권정은 '보통 사건을 형사과에 주면 '지구대에 먼저 연락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고 순찰차를 기다리면 중이었다'고 했고 A순정은 '사안이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바로 정환서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아까는 누가 피의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심하게 다친 사람도 없어서 일단 전차대로 신고 먼저 하라고 권유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남정환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한 간부는 '신고를 통해 경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지만 독력사건이 있다면 먼저 해서 형행법 체포하고 바로 처리했어야 한다. 대응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